

✠ 예 배 시 간 안 내 ✠

[현금계좌 : 신한은행 301-01-916707 안동교회]

\* 보내는분은 필히 성명+현금종류를 표기해주세요

예) 홍길동주정, 홍길동감사, 홍길동십일조, 홍길동해외선교...

<십일조현금>

김석준 김연숙 김은주 김정단 문윤희 민동욱 박경혜 배호근 우순형 유경재  
유정희 정우영 조명자 최은진 한성자 황정희

<주정현금>

강기석 강승국 강승희 고영수 곽홍섭 권은경 김길성 김나영 김대영 김미선  
김석준 김세운 김연신 김영광 김영실 김영이 김유선B 김은주 김재준 김정단  
김종만 김종순 김한숙 김행미 김현수 김해지B 김화자 김휴숙 남보라 노기방  
민동호 박성준 방 민 백병기 손선경 송홍식 신부순 신영식 양은선 오영근  
유양재 유왕재 유준자 유혜정 유화명 윤명렬 이광섭 이선자 이 성 이성희  
이연화 이영수 이영은 이예나 이정숙 이준호 이현식 이호창 임동희 임채호  
임현우 전병권 전봉순 정세학 정주원A 정학재 정혜숙 제갈희선 조명자 조민숙  
조선영 조영희 조정애 차은미 최예순 최재왕 한미경 허동각 홍동근 황금석  
황영태 황옥희

<주일현금>

강현규 백종관 이선옥 최호정 무명1

<감사현금>

김연신(독손자) 김영광 김종만(범사) 노 민 송홍식(담임목사님 사역후원)  
을지자르갈 이진영 정정아 정찬욱(은혜) 정혜령(1년감사) 흥세진A(범사)  
홍영주(인도하심) 교구연합 일터선교BBB 무명5

<기금> (장학) 고병걸

<목적현금> (3050후원) 송홍식

<선교현금>

(북방) 김영실 김정단 송숙연 추영일 한성자  
(해외) 김영실 송숙연 추영일

\*12월 안동교회 중보기도

·12월에는 갈망하게 하소서. 주를 향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존재와 삶에 더욱 가까워지게 하소서.

·피택된 향촌직분자들이 훈련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고,  
성김의 마음과 영적 은사를 더해 주셔서, 앞으로 맡게 될 귀한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힘겨운 투병 중에 있는 안동 가족들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으로 오늘을 견뎌내게 하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 배	시 간	장 소	담당교역자	
주일예배	영아유치부	오전 11시	영아유치부실	김은주
	아동부	오전 11시	아동부실	김영광
	중고등부	오전 11시	중고등부실	장희찬
	1부	오전 9시	예배당	황영태
	2부	오전 11시	예배당	황영태
3부(청년)	오후 1시 30분	예배당	김석준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예배당	황영태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시30분	예배당	황영태	

원로목사	유경재	2부찬양대지휘	최덕천
담임목사	황영태	1부오르가니스트	민동림
부목사	김경아 마명규	2부오르가니스트	김연주
파송선교사	을지자르갈(몽골)	간사	임동희
협력선교사	이영철 오영환	관리	김기복
교육목사	김석준	어린이집원장	김은주
교육전도사	김은주 장희찬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1:23)



2 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대림절 넷째주일/성탄주일

제4020호  
2025. 12. 21.

2025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신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마태복음 1:18-23

화려한 조명과 캐럴이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그러나 군중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고독(Christmas Blues)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성탄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요셉은 약혼녀의 임신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과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첫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어둡고 외로운 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두 가지 이름을 주십니다.

첫째, '예수(Jesus)'입니다. 이는 우리를 죄와 절망의 물웅덩이에서 건져 내시는 '구조대원'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둘째, '임마누엘(Emmanuel)'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올라가려 노력하지만, 복음은 신이 인간의 고독한 옆자리로 내려와 앉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의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내 옆에 앉아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가 성탄의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자 아닙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성탄절이나 연말연시가 되면 들뜬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허전하거나 외로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꼈던 순간을 나눠봅시다.)

2. 설교 중 "내 인생 식탁의 텅 빈 의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의 채워주심과 위로가 가장 필요한 '빈자리(영역)'는 어디인가요? (예: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지친 마음 등)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